

잘만났다... 'M의 대결' '세기의 명승부' 빅뱅

19일 0시 결승전 승자는?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은 두 'M'의 맞대결로 압축됐다. 한쪽 M은 자신의 축구 인생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고자 하는 '살아 있는 전설'이고 또 다른 M은 향후 10년 동안 세계 축구계를 뒤흔들 '미래의 전설'이다.

이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맞붙는다. 프랑스가 1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 코르의 알 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모로코를 2-0으로 꺾고 두 대회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아르헨티나와 우승컵을 놓고 맞붙게 됐다.

프랑스로서는 역대 월드컵에서 단 두 차례밖에 없는 대회 2연패의 기록에 도전한다. 브라질이 1958년과 1962년 우승을 차지한 이후 60년 만의 대기록 도전이다. 그러나 프랑스 앞을 막아선 팀은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다.

메시는 이번 대회가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다. 2006년 독일 대회를 통해 첫 월드컵을 경험했던 메시는 2010년대 세계축구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양분해 왔다. 이미 축구계의 전설이 된 메시의 '다스트 댄스'가 프랑스와의 결승전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메시의 맞은편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있다. 알곳

게도 메시와 음바페는 정작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같은 팀 소속이다. 두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조합으로 활약하며 프랑스 리그양은 물론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런 서로 상대팀의 공격 자원으로 우승컵을 노린다.

메시와 음바페의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의 구

음바페도 양보할 수 없다.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영 플레이어상을 받으며 2020년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축구 전설로 공인받은 음바페도 골든볼과 골든슈를 놓치고 싶지 않다.

당연히 대회 2연패도 욕심난다. 음바페의 한 골에 프랑스가 대회 2연패를 달성한다면 펠레가 60년 전에 브라질의 대회 2연패를 이끌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당연히 골든볼과 골든슈의 영예도 뒤따라온다.

또 흥미로운 것은 메시와 음바페를 지원하는 또 다른 득점 자원들이다. 훌리안 알바레스와 올리비에 지루가 나란히 4골씩 넣으며 역시 골든슈를 노린다. 지루는 올해 36세로 메시보다 한 살 많고 알바레스는 22세로 음바페보다 한 살 어리다. '올드 앤 영' 조합이 각각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공격 루트다.

그렇기에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의 맞대결은 굿이 결승전이라고 하지 않아도 이번 대회 빅매치다. 더구나 아르헨티나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7골을 주고 받는 난타전을 벌이다가 3-4로 아쉽게 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설욕전의 성격도 있다. 이래저래 이야기거리가 풍성한 결승 매치임이다.

스카이텔레비전/뉴스스

살아있는 전설 Messi, 생애 첫 우승 '불타는 야망' 미래의 전설 Mbappé, 대회 2연패 신화창조 나서 PSG 동료에 득점왕 대결까지... 최고의 흥행 매치

단주가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라는 것도 재미있다. 결국 두 선수는 구단주의 나라에서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투게 되는 형국이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 못지않게 개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메시는 2014년 대회에서 골든볼을 수상하긴 했지만 득점왕에게 주어지는 골든슈는 받지 못했다. 메시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넣으며 음바페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있다. 메시가 프랑스전에서 한 골이라도 넣는다면 골든볼과 골든슈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월드컵 우승 트로피까지 함께 안을 수 있게 된다.

모로코 감독 "우린 실패한 게 아니야"

아프리카 첫 4강에 만족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오른 모로코 축구대표팀의 왈리드(사진) 레그라귀 감독이 선수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모로코는 15일(한국시간) 카타르 알 코르의 알 베이트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2022 카타르월드컵 준결승전에서 프랑스에 0-2로 져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16강과 8강에서 스페인-포르투갈을 잇달아 제압한 모로코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넘지 못했다.

대회 기간 엄청난 조지력으로 돌풍을 일으킨 모로코는 사상 첫 4강에 오른 것에 만족해야 했다.

결승에 실패한 모로코는 오는 18일 0시 도하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예정된 크로아티아와의 3~4위 결정전에 나선다.

레그라귀 감독은 경기 후 "몇몇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했지만, 그게 핑계가 될 순 없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실수한 대가를 치렀다. 전반전에 고전했고, 후반전 추가실점이 뼈아팠다"고 말했다. 비록 사상 첫 결승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모로코 선수들이 6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스페인과의 16강전에서 승리한 후 왈리드 레그라귀 감독을 행개라고 있다. 뉴스스

레그라귀 감독은 이것이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준결승전 패배가 우리의 이번 대회 성공을 지우진 못한다"고 강조했다. 3~4위 결정전을 남겨둔 레그라귀 감독은 "심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동안 못 뒀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라며 "3위를 목표로 하겠다.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축구협, 예비 선수 오현규에 6000만원 포상금

16강 진출 추가 포상금 1억 제외

27번째 태극전사로 2022 카타르월드컵에 동행한 공격수 오현규(21·수원·사진)가 6000만 원의 포상을 받는다.

대한축구협회는 15일 "오현규에게 기본급 2000만 원,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3차전 승리에 따른 승리수당 3000만 원, 우루과이와의 1차전 무승부에 따른 1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16강 진출에 따른 추가 포상금 1억 원은 제외다.

협회 관계자는 "오현규는 규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함께 고생한 만큼 조별리그 포상금까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규는 카타르월드컵에 나서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6명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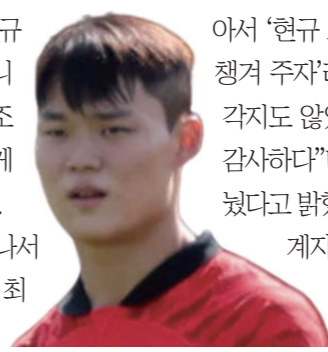
하지만 후시 모를 부상에 대비한 예비 선수로 동행해 대표팀의 월드컵 일정을 모두 함께했다.

에초 파울루 벤투 감독이 안와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은 손흥민(토트넘)이 뛰지 못할 경우 오현규를 선택할 계획이었지만, 다행히 잘 회복하면서 오현규는 예비 명단에 머물렀다.

손흥민은 조별리그 1차전부터 브라질과의 16강전까지 4경기를 모두 풀타임 뛰며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앞장섰다.

한편 오현규는 전날 MBC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26명의 선수가 돈을 모

아서 '현규 보상은 못 받으니 이렇게 챙겨 주지'라고 하더라"며 "저는 생 각지도 않았는데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동료들이 포상금을 나눠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오현규는 자신이 포 상금을 받는 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턴업 전속모델 성유리

나의 건강 책임파트너 리턴업 **Returnup**

중장년의 침침하고 흐린 눈엔 아이시안 멀티케어 골드

미네랄 2종
(아연/구리)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추출물

비타민 4종
(A/C/E/베타카로틴)

눈의 중심부인 황반의 구성 성분 '루테인'과 '지아잔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으로 맺히는 부분인 황반은 시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우리 눈의 중심 부분입니다. 황반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색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화로 인해 황반을 구성하는 색소밀도가 감소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중장년의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복합추출물'로 챙기십시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눈 건강기능식품인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식약처 일일 권장섭취량(20mg)을 충족하는 루테인·지아잔틴복합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 노화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과 기초 영양까지 케어

아이시안 멀티케어골드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뿐 아니라 기초 영양 케어를 위해 1일 권장량을 100% 충족시키는 비타민 4종(A, C, E, 베타카로틴)과 미네랄 2종(구리,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6개월분 구매 시
정상가대비 41% 할인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282-9988